

서포인의 '좌측담장'



고의사구와 경기 시간

프로야구 개막이 내일모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정말로 내일모레, 3월 24일 개막전이 열린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어 시범경기 일정을 축소하고 일정을 당겼다. 4월 개막보다야 조금 추운 시작이겠지만, 보고 싶은 야구를 빨리 만날 수 있어 나쁘지는 않다. 게다가 타 이거즈는 지난 시즌 감각적인 우승도 맛보았고, 기존의 전력에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인 선수, 군 제대 선수와 더불어 풍부한 경험의 베테랑까지 선수단에 추가되었다. 우승까지야 운도 조금 따라야겠지만, 어쨌거나 지는 날보다 이기는 날이 더 많을 것 같다. 화나고 우울한 날보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 더 많길 바란다.

개막 일정 말고도 이번 시즌 KBO 프로 야구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경기 요소의 변화는 대부분 '속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A와 NFL 등에 점점 더 인기 스포츠의 자리를 내주고 있는 MLB가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 내건 선언이 '스피드업'이다.

보통 세 시간 넘게 걸리는 야구 경기의 러닝타임을 최대한으로 줄여 보자는 것이다. 투수의 인터벌, 투수 교체 시간, 공수 교체 시간, 비디오 판독 시간 등 메이저리거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정이 어쩔다 보니 야구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고의사구'의 생략이

다. 2루나 3루에 주자가 있고, 1루가 비어 있을 때 강타자를 만나면 주로 쓰는 작전인 고의사구는 말 그대로 타자가 칠 수 없는 공 네 개를 던져 1루를 내주는 것이다. 안타를 맞느니 베이스를 하나 더 주는, 야구만의 광경이라 할 수 있다. 이 공 네 개를 던지는 시간,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도 힘을 빼고 느슨한 투구를 하며, 포수도 자리에 서서 공을 뺄 것을 요구하며 상대 타자도 어깨에 배트를 걸친 채 감빠진 표정을 짓는 시간을, 메이저리거는 없애기로 결정했다. 단지 경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는 다른 규칙보다도 더한 논란을 불러왔다. 고의사구라 하더라도 경기의 일부인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을 임의로 지운다는 것은 야구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 야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균 경기 시간이 세 시간이 채 되지 않는 미국에서조차 시간 단축을 위해 예를 쓰는데, 우리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타고투저 현상으로 인해 두 자리 점수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투수층이 얇아 어떤 날은 마운드 위에 있는 선수가 프가 맞나 싶을 정도도 불뱃이 쏟아진다. 이닝 시간이 늘어 나면서 실책도 당달아 많아지고, 각종 작전과 사인이 경기 초반부터 불을 뿜는다.

2007 시즌 KBO 평균 경기 시간은 세 시간 21분이었다. 메이저리거보다 약 20분 이상 길다. 여섯 시 30분에 시작하면

열 시가 다 되어 경기가 매조지된다 뜻이니, 직장인이 평일에 즐기기에 적합한 하지 않은 시간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KBO는 선진 야구, 즉 미국 야구의 방안과 대책을 끌어다 쓰기를 택한 듯하다. 주자가 없을 때 투수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12초 룰'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타석에 들어설 타자에게 예비 배트 두 개를 준비하도록 해 배트가 부러져 경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비디오 판독도 5분 동안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원심이 유지된다.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미국과 같다. 고의사구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고의사구에서 폭투를 범하는 영상을 하이라이트에서 본 적이 있다. 김기태 감독은 그런 실수를 할까봐 3루수인 이범호를 포수 뒤에 세웠다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제지당한 적도 있다. 고의사구인 척 일어났다가 재빨리 앉아 승부에 들어가 타자를 현혹하는 장면도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현재 타자를 고의사구로 거르고 있을 때, 그 공 네 개를 던지는 동안, 다음 순서 타자의 아쉬운한 표정이나 기합 들어간 연습 스윙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사구 의사를 표하면, 타자는 바로 1루까지 걸어간다. 그렇게 다음 타자와 바로 승부.

세 시간은 바쁜 현대인에게 무척 긴 시간이다. 하지만 가끔은 꽤 짧은 시간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란 참으로 괴짜하여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길이를 언제든지 달리한다. 순간순간마다의 스토리가 촘촘히 짜인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야구를 볼 때 우리는 시간의 괴짜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물론 지루한 게임이 있다. 수준 이하의 플레이를 연발하고, 이닝 중간에 투수는 계속해서 바뀌고, 스트라이크는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경쾌한 타구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경기. 그런 경기야 KBO의 평균 경기 시간을 크게 올리고 있을 것이다. 고의사구가 경기 시간에 미치는 통계적 분석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세 시간 20분, KBO만의 독보적인 경기 시간이다. 이 시간을 줄이려면 MLB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아니 더 괜찮은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야구팬들의 입장에서 경기 시간이 늘어나 짜증 났던 기억이 몇 있다. 대량 실점 후에 벌을 주듯 투수를 바꾸지 않아 늘어진 경기. 애들 기 싸움하듯 아웃 카운트 세 개에 투수를 세 명 쓰는 경기.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함당시고 10분 넘게 헤드폰을 끼고 묵묵부답이던 경기. '몸에 맞는 볼' 이후에 인사를 했니 안 했니 신경전을 벌이던 경기 등등. 고의사구는 그중이 없다. 이번 시즌의 평균 경기 시간이 어찌될는지, 지켜볼 일이다. (시인)

社說

줄어든 선거법 위반 공명선거 분위기 끝까지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는 지난 선거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 제공 등 중대 불법 행위가 현저히 감소해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고발 11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54건 등 모두 6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같은 시기에 적발된 209건에 비해 68.4%나 줄어든 것이다. 광주는 37건에서 11건으로, 전남은 172건에서 55건으로 줄어 양 지역 모두 급감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가 123건에서 66건으로 68.4% 감소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은 11건에서 4건으로, 인쇄물 관련은 46건에서 23건으로 줄었다. 집회·모임을 이

용한 선거 운동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

선거법 위반의 급감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전 선거 운동 판단 기준이 달라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선관위의 진단이다. 당시 판례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 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이나 인지도 제고 활동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여기에 지난해 총발 집회와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선거 문화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 행위가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막판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후보자들도 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순환도로 상남 구조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광주시 간부공무원을 지낸 A씨가 엇그제 광주 2순환도로 1구간(누암 IC~소태IC) 운영 과정의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구간 운영 업체와 민간투자 보증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약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뇌물 혐의를 받고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소환을 앞두고 있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2순환도로 1구간 민간 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투자㈜(맥쿼리)에 총 2041억 원을 지원해 왔다. 그래서 1구간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후 광주시는 운영사에 재정 지원을 줄이는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나서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투자비 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

유족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운영사(맥쿼리)가 운영비를 부풀려 광주시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사와 도로시설관리 용역 업체 간 상남 구조가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운영사가 통행료 수납 용역 업체와 시설관리 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하려하자 시설관리 업체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서 "통합 위탁 운영을 얘기하던 술자리에서 시설관리업체 회장이 운영사 사장에게 술잔을 던지며 '그동안 있었던 상남 구조에 대해 다 불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사례를 유서에 남겼다. 물론 맥쿼리 측에선 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일단 새로운 사실로서 철저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재정보전금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수사가 관한 한 개인의 뇌물 혐의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운영사와 시설관리 업체 간 상남 구조와 운영비 부풀리기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교정 치료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이경민 전남대치과병원 교정과 교수

대다수 부모님들이 "교정 치료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라고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적절한 치료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치과의사에게 검진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정 검진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 영구치는 대개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7세 되면 어느 정도 위아래 치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위한 우리 아이 생애 첫 번째 교정 검진은 6~7세 정도가 적당하다. 첫 번째 교정 검진 이후에 치과의사로부터 꾸준한 관찰과 관리를 받다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교정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앞으로의 성장기 동안 정상적인 턱 성장을 유도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얼굴 모양, 고른 치아배열 및 건강한 치아 교합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아이에게 교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르게 보이는 치아도 문제가 있는 부정 교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어도 7세에는 교정 검진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 아직 나이가 어린 미취학 아동이라도 교정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젓기가 일찍 빠지거나 혹은 늦게까

지 남아 있는 경우, 한쪽 영구치는 나왔는데 반대쪽은 1년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씹거나 깨무는 것이 어려울 때이다. 또한 볼을 씹거나 입전장을 씹는 경우,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지 않거나 너무 깊게 맞물리는 경우, 윗니와 아랫니가 반대로 맞물리는 경우, 심하게 비틀어지거나 튀어나온 치아, 얼굴이 조화롭지 않은 형태를 보일 때 등도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편 엄마들이 보기에는 당장 교정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검진을 받아보면 치료보다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혼합치열기 즉, 윗치가 탈락하고 영구치가 맹출(萌出)해 구강 내에 윗치와 영구치가 같이 존재하는 이시기 때 나타나는 영구치 앞니의 변화이다.여기서 맹출은 빠 안에서 이가 발육과 성장을 하던 도중에, 일정 시기가 되어 잇몸을 열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윗턱의 경우, 윗치 앞니가 탈락한 후 영구치 앞니는 원심 방향으로 맹출하기 때문에 혼합치열기 시기에 윗니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게 정상이다. 이 공간은 추후 영구 송곳니가 돌아나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매워진다. 정상적인 맹출시 일어나는 발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미운오리새끼 동화에 나오

는 이야기에 비유해 'Ugly duckling stage' 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영구 송곳니가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앞니 사이의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검진을 받는 게 좋다. 반대로, 아래턱의 경우, 윗치 앞니가 탈락한 후 윗치보다 크기가 더 큰 영구치 앞니가 맹출하면서 공간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치아가 빼돌뻐뻐해진다. 이 역시 영구치 앞니 4개가 차례로 맹출하면서 옆에 있는 윗치를 후방으로 밀어줌으로써 부족했던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빼돌뻐뻐했던 치열이 자연스럽게 가지런해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치열이 빼돌뻐뻐해지고 윗치를 선블리 뽑는다면 오히려 맹출 공간 형성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교정 치료가 당장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치료보다는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혼합치열기 시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치아에 교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정 치료가 가장 성공하기 좋은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시기의 교정 검진, 즉 6~7세에 이루어지는 생애 첫 번째 교정 검진은 성공적인 교정 치료를 위한 첫 걸음이다.

기 고

지방선거의 꽃은 정책(policy)이다



신일섭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 주민 자치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이에 각 후보자들은 지역 단위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단위의 자치와 행정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며 중요시 되는 것이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현장의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출마 후보자, 그의 사상과 주장이 담긴 정책,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출마 후보자의 됴됨이와 사회문제 해결 정책이 훌륭하다면 그 다음으로 대중 동원을 위한 조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과 염원을 정책에 잘 반영한 후보자가 단연 최고의 후보자일 것이다. 불만을 여러 꽃들이 만발하듯 선거철에는 지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만개해 유권자들에게 풍성한

불거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의 꽃은 정책(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부 또는 정치 단체가 그들의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행정적 행동 지침이다.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수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것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립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없는 종이폭죽이 불과할 것이다. 최고의 정책은 바로 현장에 그 해답이 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선거란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다. 후보자들 간의 경쟁력은 지역 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정치 참여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정책 경쟁보다는 흠집내기나 감정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 선거철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다. 후보자들은 어디까지나 시민 공동체, 자치 공동체를 위한 절제와 봉사라는 관점에서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과포장되는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삶과 현장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당연히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전한 정책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상상과 협치의 정신을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달래주는 후보자의 따뜻한 정책이 최고인 것이다.

아울러 요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오랜 숙원을 풀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영화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만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특히 '아가씨' 히데코 역을 맡은 배우 김민희와 '하녀' 숙희 역을 맡은 김태리의 모습을 담아낸 컷들은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배우들의 모습은 그가 펴낸 사진집 '아가씨, 가까이'를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작품 기획 단계인 2013년부터 영화음악을 녹음하러 간 2016년 3월까지 촬영했다는 100여 컷의 사진에는 그만의 독특한 시선이 담겨 있다. 그가 포착한 사

관망객들이 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침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박찬욱 감독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신작을 동생 박찬경과 함께 참여한 '파킹찬스 PARKING CHANce 2010~2018'전(7월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신반의' '격세지감' 등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서 박 감독은 다양한 풍경과 정물의

사진을 내놓았다. 흥미로운 작품은 '내가 미술관에서 세계 명작들과 나누는 대화'

라고 밝힌 '미술관 연작' 시리즈다. 나희덕 시인도 그가 포착한 피사체를 보여 주는 전시를 열고 있는데, 전시회 제목은 '시인의 사진, 시인의 그림'전(5월14일까지 광주 생각상자 갤러리)이다. 이번엔 시인의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 역시 시인의 눈은 다르구나" 하는 거였다. 그녀가 캐는 카메라로 잡힌 풍경과 인물들은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사진으로 쓴 시' '사진으로 쓴 영화' 같은 작품을 한번 즐겨보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감독과 시인의 사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